

#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전곡, 무대 위에

### 바리톤 박흥우 · 피아니스트 이영신 '2022 월간더문화' 11월 공연

사단법인 더문화(이사장 이윤정)의 2022 월간더문화가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는 바리톤 박흥우와 피아니스트 이영신이 겨울나그네 전곡을 준비하고 있다.

2022 월간더문화는 사단법인 더문화가 2022년 새롭게 기획한 올해의 주력 프로젝트로,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문화공간 이룸에서 만나볼 수 있고, 매월 다른 주제와 아티스트로 다채롭고 활기찬 공연을 꾸리는 장기 프로젝트 공연이다.

또한 전복에서 만나보기 힘든 세계적 명성의 예술가들과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열린 음악회와 동시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복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다 함께 관객이 되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써 도내 관광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2 월간더문화는 지난 5월 31일 시작돼 지난달 25일까지 성황리에 공연이 마무리됐다. 지난달에는 메조소프라노 '장은 이' 가을 밤의 시원한 정취와 마음속에 파스함이 피어나는 듯한 공연으로 환호 속에 공연을 마무리했으며 그 뒤를 이어 슈베르트 가곡 연주의 독보적인 존재로 잘 알려진 세계적 바리톤 박흥우와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등 다수의 독주 및 실내악 가곡을 연주한 바 있는 피아니스트 이영신이 2022 월간더문화 11월 공연에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전곡 연주 준비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9일 전주 문화공간 이룸에서 2022 월간더문화 11월의 공연에서 만날 바리톤 박흥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바리톤 중의 한 사람으로, 위에 언급했듯 슈베르트 가곡 연주의 독보적인 존재로 잘 알려져 있다.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하여 빈 국립음악대의 성악과 리트와 오라토리오과, 오페라과를 최우수 졸업했다. 중앙대 재학시절 동아콩쿠르에서 1

위로 입상한 그는 빈 국립음악대 재학시절부터 유럽 전역의 음대에서 오디션으로 선발된 솔리스트로서 당시 공산권이었던 유고슬라비아와 그라츠 등에서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함으로써 그의 유럽 연주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고 오페라 분야에서도 비엔나에서 리콜레토 주역 24회 등 독일 이태리등지에서 많은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ORF 오케스트라, ORF 합창단 비엔나 소년합창단의 수많은 연주단체들과 함께 500여회의 오라토리오 중심 연주회와 음반녹음 방송 출연 등의 경력을 쌓았다.

그는 기독교 문화대상을 수상했고 2011 한국평론가협회에서 주는 올해의 최고예술가상, 그리고 같은 해 독일가곡의 예술성을 높이고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 십자공로훈장을 서훈했다.

또한 그는 성결대 강의전담을 역임하고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현재 전북대 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강의 중임과 동시에 가곡전문 연주단체 리더라이프의 대표로 있다.

또 다른 연주자인 피아니스트 이영신은 선화예술고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기악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악대 전문연주자과정(Diplom), 가곡나주과정, 피아노실내악과정을 졸업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 국립음악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하였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연주학사(KDMA) 학위를 취

득(1호 박사)했다. 한국발하모니 오케스트라 콩쿨과 서울 내셔널 오케스트라 콩쿨 그리고 한독 브람스 협회 콩쿨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다수의 초청 독주회와 모차르트,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등, 다수의 독주 및 실내악 가곡을 연주했다.

현재 그는 숙명여대 대학원 공주대, 강릉원주대 조선대, 강원예고 및 영재교육원에 출강 중이며 Tio la Mer Pianist와 클라시코 예술기획의 대표에 재직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9일 전주 문화공간 이룸에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전곡 연주로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2022년 5월에 출발한 2022 월간더문화는 벌써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으며 어느새 다음달인 12월 마지막 주 화요일의 공연만 남겨두고 있다. 2022 월간더문화의 긴 여정의 마지막을 함께하게 될 아티스트는 테너 '조태진', 테너 '지명훈', 바리톤 '석상근', 바리톤 '장광석'이다.

사단법인 더문화의 예술감독 이윤정 이사장은 "잊그제 시작할 것 같은 2022 월간더문화가 어느새 긴 여정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다. 5월부터 쉴 새 없이 달려온 2022 월간더문화가 지친 일상 속 많은 지역민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남은 11월과 12월 까지 2022 월간더문화와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부쩍 쌀쌀해진 11월의 찬바람에 땀 한 마음은 2022 월간더문화의 11월 공연을 통해 문화 향유와 함께 마음 깊이 따뜻한 가을 채워 가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양은경기자



### 박솔녀 한복 디자이너, 30일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출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한복 대령이라 불리며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선 박솔녀 한복 디자이너가 출연해 K-한복의 명품화, 세계화를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복의 세계화를 이끈 1세대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 선생의 문화행이 되어 한복을 배우게 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불과 단 5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건 한복집을 차리게 된 일화, 유명 스타들에게 한복을 입히면서 겪었던 다양한 후일담을 들려준다. 우리음악 즐기기는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과 기악단이 출연해 봄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궁중정재 '춘앵전', 서용석류 '내곡산조', 나지막한 가야금산조 선율에 맞춰 감성적인 흡사위를 풀어내는 무용 '부채산조'를 선보인다. /남원=김기두 기자

# 조선 말 당시 부안의 실체적 모습 조망

### 부안군, 내일 '홍재일기로 본 부안의 사회상' 학술대회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부안교육문화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홍재일기(1866~1911)로 본 부안의 사회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홍재일기는 부안군 주산면에 살았던 기행인이 45년 동안 기록한 일기로 일찍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부안 '백산대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주목되었다. 올해 부안군에서는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와 함께 홍재일기를 국역하여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북대학교 한문종 교수의 기초강연과 소장자 기근 선생의 사회화 시작으로 총 6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주제발표는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동학농민혁명(이선아,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19세기 말 부안군 흉년의 성격과 역할(김영준, 오래된 미래연구소) △1894년 이후 부안의 사회적 동향과 경제적 실상(김철배, 임실군청) △홍재일기를 통해 본 지방 사족의 일

상생활(임혜영, 군산대학교) △홍재일기에 나타난 기행현의 학술과정과 중국 시문의 수용(송형근, 전북대연구원) △홍재일기에 나타난 조선 말 풍속(鄭斗, 배경숙, 완산역사문화연구소)를 순서로 진행한다.

이후에는 신영우 총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조광현(한국학중앙연구원), 문용식(전주대학교), 정재철(부안역사문화연구소), 박완호(전남대학교), 김경성(부안문화원) 등 지역 연구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군에서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홍재일기'에 나타나는 부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 동향, 행정 및 민정, 곡물가격의 변동, 향유(鄕儒) 간의 교류관계, 학문수련 과정, 세시풍속 등 조선 말 당시 부안의 실체적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부안=김성진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순수예술작가 전시회

### 25-27일 롯데백 전주점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25~27일 3일간 롯데백화점 전주점과 협업으로 1층 EV홀에서 도내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는 전라북도에서 예술작가들의 지속 가능한 창작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 참여작가 12명의 아트상품 총 19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올해 개발된 아트상품들은 참여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전라북도의

세계유산 자원, 자연생태, 자유 주제 등 총 3가지 테마로 진행됐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지역예술가치 확산으로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박병의 팀장은 "앞으로도 전라북도 유일의 백화점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사업팀(063-230-7488)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부안군,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세상의 모든 나라 음악' 28일 공연

부안군은 '세상의 모든 나라 음악' 공연을 다가오는 28일 오전 11시에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무료로 선보인다.

'세상의 모든 나라 음악'은 클나무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유수영)가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등 총 8개국의 대표 나라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매 연주회마다 다양한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새

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오케스트라가 주는 다양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로 이번 공연 또한 기대가 크다.

이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하는 2022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안 아트 릴리버'의 작품으로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군민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부안=김성진 기자



전주 한옥마을 등 전주 동부권 문화감성도시 활성화 전략 포럼'이 지난 22일 국립무형유산원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 '교통 넘어 미래로 가는 문화감성 도시 활성화'

### 전북대 LINC3.0 사업단-상권협 전북연합회, 전주 동부권 문화감성도시 활성화 전략 포럼'

전주 한옥마을 등 전주 동부권 문화감성도시 활성화 전략 포럼이 지난 22일 국립무형유산원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전북대학교 총장 김동원은 LINC3.0사업단(단장 송철규)과 한국상권협회 전북연합회(회장 이석동)와 공동으로 '전주동부권 문화감성도시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대학교와 한국상권협회 전북연합회가 주최하고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최용석)의 후원으로 열렸다.

포럼은 '교통을 넘어 미래로 가는 문화감성도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을

주제로 △발표제션 △토론제션으로 나눠 발전 방안, 문화콘텐츠 활성화 혁신사례 공유 및 전략적 접근 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석동 한국상권협회 전북연합회장의 교통을 넘어 미래로 가는 주제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군산대학교 김형철 교수의 Why 문화감성도시 콘텐츠(休), 재가방민 무주산물문화재단 유가하 이사장의 '무주산물영양체 지역을 낳다, 대진대학교 사형준 교수의 전북문화감성도시 정책 추진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토론 세션에서는 중앙대학교 이형환 부총장을 좌장으로 군산대학교 박병선 교수와 JTV전

주방송 신호균 전대표와 연사들이 앞서 발표한 주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송철규 단장은 "지역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통을 넘어서 새로운 도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시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지역민과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 육성 발전 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용석 원장은 "지역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시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웹진 '마중' 오픈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웹진 '마중' 1호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23일 재단에 따르면 웹진 '마중'은 재단이 도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써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재단 관계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도내의 각종 문화예술관광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담아 독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담았다.

특히 웹진 '마중'에서는 'JB커버스토리', 'JB시선집중', 'JB리포트' 등 여섯 가지의 카테고리 속에서 전라북도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특집 기사 소개, 전문가 칼럼, 문화예술 및 관광 업계 종사자 인터뷰, 각종 재단 인



웹진 '마중' 홈페이지 화면.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제공)

터뷰, 그리고 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 안내 등 내부 소식까지 풍성하게 담았다. 웹진 '마중'은 자체 온라인 홈페이지(https://

jmajung.or.kr)를 통해 독자들에게 공개되며, 재단 홈페이지(https://jtc.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웹진 오픈 기념으로 쿼츠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 이벤트는 1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웹진 기사를 읽고 쿼츠의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웹진 '마중' 오픈이 고객 친화적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통해 전라북도의 문화예술과 관광을 널리 알리고, 독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웹진 '마중'은 전라북도문화관광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기자